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김주연[†] · 이효진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A Study on Hybrid Trend upon Alexander McQueen's Work

Ju-Yeon Kim[†] and Hyo-Jin Lee

Dept.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5. 1. 17. 접수 : 2005. 3. 19. 채택)

Abstract

Hybrid trend of the 21st century is an important basis to express fashion Alexander McQueen is a representative designer of Hybrid trend which combines heterogeneous elements into one concept. Accordingly, this study distributed and analyzed Hybrid trend which was in Alexander McQueen's work like below. First, there was a racial Hybrid trend which combined different local culture in shared space of the world in his fashion work and he challenged to Westernized ideal beauty with new recognition and knowledge about beside countries of Western Europe which were considered as not important culture due to perceiving relative value of a pluralist society and created new way aesthetic consciousness. Second, he expressed a historical character of a combination of tradition and modern by his fashion work based on wide historical knowledge of a dress. He created a new line in contrast to the past with a perfect design through combination of the style from the tradition with the parody and displayed his own design world. Third, he treated instability and disorder from the interior essential dissolution, thus he had a cultural character which broke down the boundary of cultural genre and style. This attitude showed transformation of constructivism and deconstruction view, secession and distortion, mixture, duplication, secession and insert by his fashion work.

Key words: Alexander McQueen(알렉산더 맥퀸), hybrid(하이브리드), racial trend(민족적 요소), historical trend(시대적 요소), cultural trend(문화적 요소).

I. 서론

현대사회의 다양한 매체의 발전은 패션 정보를 빠르고 광범위하게 만들었으며, 후기 자본주의의 다 품종 소량 생산 체제하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나 집단적 정체성의 표현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하였다. 패션 상품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화가 촉진되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다원화 현상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상대적이고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표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와해되고, 사회구조 또한 수평적 관계의 대증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전환되는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하기보다 상호 침

[†] 교신저자 E-mail : 0416moon@hanmail.net

투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패션에서도 다원화 경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패션에 나타난 다원화 경향은 다른 복식 문화권에 관심을 두게 된 '탈 중심화' 현상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그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을 와해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체지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¹⁾ 이렇듯, 다른 패션 감각의 공존인 크로스오버(crossover)·융해·융합·합병이라는 의미의 퓨전(fusion)과 동의어로서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가 주목되는 시대성을 반영하며 생겨난 용어가 하이브리드이다.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들의 주요 표현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런던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독자적인 스타일(individuality)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런던패션은 '파괴적인 해체', '아방가르드', '다원주의의 집합체'라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다.²⁾ 이렇게 되기까지는 1960년대 하위문화와 스트리트 패션의 조화로 발생했던 패션 혁명과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Alexander McQueen, John Galliano, Hussein Chalayan 등의 젊은 영국 출신 디자이너들이 발표했다. 파괴적이며 다원화한 경향의 스타일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런던패션과 런던 패션 디자이너들은 독특한 주제와 표현방식으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³⁾

특히 Alexander McQueen은 엄격한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려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으로 현대 패션계의 가장 주목 받는 디자이너로 떠오르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대중문화, 상업주의 문화적 패션에 기술과 분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적 특징을 갖는다. 즉, Alexander McQueen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것, 즉 '하이브리드 리컨스트럭션(hybrid reconstruction)'으로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영국 패션과 영국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현대 영국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⁴⁾와 Vivienne Westwood⁵⁾, John Galliano⁶⁾, Hussein Chalayan⁷⁾, Alexander McQueen⁸⁾과 같은 영국 출신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대 패션계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과 Alexander McQueen의 작품을 연계시킨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특징인 다양한 장르의 혼합 및 붕괴의 복합적인 패션 경향을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정하고, 하이브리드 경향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Alexander McQueen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대, 지역, 예술, 패션, 대중문화 등 범주에 대한 편견없이 열린 사고와 독특한 감각으로 자신의 창작세계를 성공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McQueen의 디자인을 고찰·분석하고, 이를 현대 패션의 주요 표현 방법인 하이브리드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써 하이브리드 패션을 새롭게 인지하고 동일 전공 분야에 신뢰도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패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1) 임영자, 한윤숙,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복식 51권 5호 (2001), pp. 113-134.

2) Ammy de la Haya,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N.Y.: The Overlook Press, 1997), p. 21.

3) 장애란,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권 5호 (2002), p. 92.

4) 권자영,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5) 열혜정,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권 (1999), pp.71-89.

6) 김명섭,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7) 장애란, *Op. cit.*, pp. 91-107.

8) 배수정, "영국패션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Alexander McQueen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권 3호 (1999), pp. 43-54.

적과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Alexander McQueen이 Givenchy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Givenchy에서의 오프 구뛰르 활동이후 Alexander McQueen의 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문헌연구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의 개념 및 특징은 물리학과 사회학의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Fashion Show」⁹⁾, 「동아 TV Collection」¹⁰⁾ 등의 컬렉션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www.firstview.com」, 「www.fashionwide.com」에서 총 522점의 작품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하이브리드의 개념과 패션에 나타난 특성

1) 하이브리드의 개념

21세기 들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양식의 혼재는 상품과 사용자간에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개념을 도입하여 개개인의 취향이 적절히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가능해진 인터랙티브한 제품들은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물리적, 신체적 특징, 심리적인 변화, 정보처리에 필요한 인지과정 등 인간과 제품이 상호작용을 이루는 인터페이스(interface)개념이 바탕이 되고 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정보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그 기능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서, 방송은 TV 수상기, 음성전화는 전화기·컴퓨터 서비스는 컴퓨터를 고유의 플랫폼으로 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네트워크, 인터넷으

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으로 모든 서비스들 같은 네트워크로 통합된 기기를 사용해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방송 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 산업은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술이나 시스템이 결합되는 것을 '잡종', '혼성물'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라고 한다¹¹⁾.

이처럼 하이브리드란 용어는 자동차 기술분야, 재료학, 경영학, 건축, 광고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잡종', '혼성물'의 뜻이며 기존에 어울릴 수 없는 두 영역을 융합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 새로운 영역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에너지 절약과 저공해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로써, 엔진 기술과 전기 자동차 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FGV-II(Future Green Vehicle : 미래 친환경 자동차)가 개발하였다.

재료학 분야의 하이브리드 연구는 나노 복합체를 기본 기사재로 사용하고 인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제조하고 있다.¹²⁾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씨미스터의 온도와 전기 저항에 영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 신기능을 추가하고 복합화, 소형화, 고신뢰화 등의 센서의 지능화 기술력으로 풍속센서, 습도센서, 수위감지센서, 가스센서, 풍향센서 등으로 하이브리드 소결법¹³⁾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소재는 기능 설계나 물성 극대가 용이한 차세대 소재로서 핵심기술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화된 연구 인력의 조직적, 유기적 협력을 필요¹⁴⁾로 한다.

경영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피터 킨

9) 일본 Gap사에서 발행한 패션 전문잡지로, 1996년에서 2001년까지의 S/S, F/W 컬렉션을 참고하였음.

10) 한국 동아 TV에서 발행한 패션 전문잡지로, 2002년 S/S, F/W부터 2005년 S/S 까지의 컬렉션을 참고하였음.

11) 위영자, 한윤숙, *Op. cit.*, p. 114.

12) 강종봉, 조병래, 이수영, "SiC/Si₃N₄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 *한국재료학회지* 6권 4호 (1996), pp. 428-435.

13) 최영락, 안진용, 안주삼, 백동규, 최승철, "마이크로파 하이브리드 소결법에 의한 NTC 시미스터의 제조,"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rystal Growth* Vol. 8 No. 3 (1998), pp. 508-512.

14) 김준경, 고분자 하이브리드 연구센터(Polymer Hybrid Research Center) KIST 홈페이지 (2004년 12월 [2004년 12월 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ebhost.kist.re.kr/teams/kist/korean/research/research-a3.html>

(Peter Keen)에 의해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용어인 '하이브리드 매니저(hybrid manager)'가 있다. 하이브리드 매니저란 기술적인 능력과 직결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또는 직결한 기술적 능력과 뛰어난 비즈니스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매니저는 기술적인 지식은 물론 조직에 대한 지식과 경영 능력 모두를 필요로 하고 있다.¹⁵⁾

건축에서의 하이브리드는 근대의 단순, 추상적이고 순수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립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공존(하이브리드의 방법)과 난해한 전체(하이브리드의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¹⁶⁾ 하이브리드 건축이란 용어는 구체적 개념으로 어떠한 사조나 양식을 표현한다기 보다는 건축의 복합성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도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특징인 절충주의적인 특징이 반영되어 양식과 장르의 혼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과 각각의 영상 이미징들이 만들어내는 모호성을 제공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는 산업사회, 대중소비사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어 대중성, 상업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1990년대 이후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시대별 영화장르들이 한꺼번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영화에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특정 장르라 지적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 장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¹⁷⁾ 이로 인해 과거 영화 장르들의 향수에 의해 등장한 장르의 절충주의적 경향이 다양한 합성을 통해 기존의 원본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창조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하이브리드 개념은 건축의 나열성과 규범 해체의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탈중심화, 해체주의, 절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는 20세기 후반부 예술사조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포스트모더니즘과 일맥상통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조정미¹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개념을 '주체의 탈중심화',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 '이원적 대립의 해체', '전통적 진보 사관의 부정'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양식으로 대변되는 다원주의, 절충주의와는 달리 정보사회의 과학 기술 발달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으로 차별화 되고 있다. 즉 정보 과학 기술이 밀받침된 장르의식의 붕괴와 장르의 혼합, 그리고 절충주의적 확산을 통한 다원적이고 확산적이며 유동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표현 양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거대이론 혹은 총체성의 거부, 모든 이원적 대립의 해체라는 기본 명제를 기초로 한 다양성과 다원성이라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틀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 계층, 지역, 국가, 민족 등에 대한 관심과 다원적 요소들 간의 수평적인 조절과 조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20세기 이후 모든 장르를 분분하고 나타나는 특징은 시대를 지배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다양한 진위적 운동의 견해와 실험적 시도의 추구로 인해 새로운 장르의 시도가 많아지고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향이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본격적 논의와 함께 가속화되어, The Face지는 1980년대의 빠른 스타일의 교체를 "오늘날의 스타일은 'look'도 아니며 'style'도 아닌 무질서로 빠져들어 혼돈상태이며 마치 정신병원에 와 있

15) David Skyrme, "The Hybrid Manager," (1995년 [2004년 12월 1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skyrme.com/insights/6hybrid.html>

16) 박홍, 윤도근,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5호 (1991), p. 85.

17) 고윤진,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 5.

18) 조정미,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6호 (2003), pp. 925-940.

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¹⁹⁾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탈 장르화 현상으로 1990년대에는 여러 아이템과 소재의 설충과 같은 믹스트 스타일(mixed style)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현상이 더욱 세분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이 한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패션에서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은 ‘미/추’, ‘변/부’, ‘정숙성/비정숙성’, ‘여성성/남성성’, ‘전통성/현대성’ 등과 같이 다원적 요소들 간의 수평적 조절과 조화를 통한 다양한 재현적 양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혼성모방(pastiche), 패러디(parody), 콜라주(collage) 같은 기법²⁰⁾을 통해 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혼성 모방은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등을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 작품 또는 그러한 창작 방법을 말한다. 패션에서의 혼성 모방의 소재는 오리진널 패션 디자인과 하위 문화 스타일, 예술작품이나 종교적 이미지, 그래피티(graffiti), 오브제(object), 역사적 이미지, 민속적 이미지들로서 이들은 차용(appropriation), 조합, 복제의 기법으로 혼성 모방되어 나타나고 있다. 패러디는 조롱이든 찬양이든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스타일상의 조합을 피하는 것으로 패션에서의 패러디는 주로 대가들의 회화나 팝아트의 작품을 패러디의 대상으로 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콜라주는 입체파 화가들에 의해 처음 회화에 도입된 것으로 신문, 사진, 형겅 등을 2차원의 평면에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를 분명케 해주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창조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으로 패션에서는 주로 패치워크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²¹⁾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의 표현적 특징은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남성적인 특징과 여성적인 특징을 혼합하거나, 각각의 요소들을 반대 성에 차용함으로써 성적인 차별을 중시했던 기존의 패션 관념에서의 일탈을 꾀한다. 또한 거리 패

션과 하이 패션 요소의 혼합과 절충을 통해 패션 소재와 디자인에 있어서 경계진 틈에서 날피하여 보다 다원화된 방식으로 즐거움과 유희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절충, 각 지역 요소들 간의 절충, 자연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역적인 경향의 하이브리드화는 서구 문화 중심이던 패션 체계를 벗어난 다양한 문화적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에콜로지(ecology)와 이국 취향, 에스닉 룩(ethnic look) 등으로 패션에 표현되고 있다.

2. Alexander McQueen의 작품 특성

Alexander McQueen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각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엄격한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인 면에서 정상의 자리에선 디자이너이다. 영국의 명분인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St. Martin School of Art)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Alexander McQueen은 1996년 11월 John Galiano의 후임으로 Givenchy를 맡게 되었으며, 1996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그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1994년 복지기금의 후원을 받아 데뷔 쇼를 가졌고 이때부터 단지 7회의 컬렉션을 선보인 상태에서 1996년 10월 지방시의 디자이너로 지목되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Vivienne Westwood, John Galiano를 이어 패션계의 반항아로서, 기침없는 아이디어의 소유자로서 자리 매김한 McQueen은 비즈니스 능력과 예술적 창의성, 완벽한 테일러링을 겸비한 디자이너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컬렉션은 강간, 노예, 교통사고, 기아 등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스스로 “나는 관객들이 쇼를 보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가 토하기를 바란다. 나는 극단적인 것이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중문화, 상업주의 문화적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Anderson Shepherd와 무대의상 디자이너 Berman and Nathans에서 견습한 경력만큼이나 단단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재단방법과 커팅, 기발한 무대연출 등 새로운 스

19) 김민자,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반미학, 얼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2000), p. 380.

20) 조정미, *Op. cit.*, p. 939.

21) 양화미, 김민자,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복식 50권 1호 (2000), pp. 69-84.

타일을 창조해 내리는 적극성과 도전정신은 패션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의 와해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에 오는 제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혼성모방, 패러디, 풀라주 등의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여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시간적, 공간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노스웨스턴, 남너성의 혼합, 동양적 요소와 서양적 요소의 혼합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Alexander McQueen의 패션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과거의 요소를 차용하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요소들과의 혼성을 노리는 시대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둘째,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형성되는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셋째, 다원화 되고 탈장르화 되고 있는 예술의 장르와 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적 관점의 하이브리드 등의 특성으로 세분화하였다.

III. Alexander McQueen의 하이브리드 경향 분석

1.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20세기 과학의 발전과 탈 이념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유행의 공유 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여건의 향상과 정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신속한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류는 하나며 지구촌화라는 세계관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곳곳의 고유한 민족복식을 현대 패션에 도입하는 다원적인 태도를 갖게 된 정보시대의 패션은 국제화의 모습으로 서구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수용의 태도²²⁾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아시아나 아프리카 혹은 남미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민족풍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적합한 패션주제로서 에스닉 룩이라는 이름 하에 서양 복식문화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²³⁾ 따라서 전 세계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을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 있다.

Alexander McQueen은 이러한 민족적인 요소의 하이브리드화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유럽 고전복식과 소수 민족 문화에 심취하여 인디언,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복식과 문화를 차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1997년 Givenchy 컬렉션에서는 일본의 기보노와 중국의 치파오를 차용한 디자인을 발표하였고, 동양적인 양단과 공단, 자카드 소재를 사용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배꽃과 일본의 관상어를 모티브로 한 자수와 프린팅을 사용하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헤어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면서 조형적인 독창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동양과 서양을 합쳐놓은 듯한 1998년 S/S 컬렉션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컬렉션의 주제는 “일본의 정원(Japanese Rock Garden)”으로 많은 나비와 금붕어, 벚꽃 등이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 2003 F/W 컬렉션은 아시아의 눈덮힌 초원을 연상시키는 무대에 중국풍의 화려한 자카드 소재와 모피가 사용된 치파오, 그리고 몽



<그림 1> Givenchy by Alexander McQueen, '97 F/W
www.fashionwide.com

22) 김문정,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52.
23) 주명희, “크리스티앙 라크루와와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권 1호 (1992), p. 124.



〈그림 2〉 Alexander McQueen, '01 S/S.
www.firstview.com



〈그림 4〉 Alexander McQueen, '00 F/W.
www.firstview.com



〈그림 3〉 Alexander McQueen, '97 S/S.
www.firstview.com



〈그림 5〉 Alexander McQueen, '00 S/S.
www.firstview.com

꽃의 전통복식을 차용한 디자인으로 아시아의 유목민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쇼를 연출하였다.

또한 〈그림 4〉는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 원주민의 의상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인체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속박하는 다양한 스타일의 액세서리와 오브제를 사용하여 야상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강하게 풍긴다. 〈그림 5〉, 〈그림 6〉의 이슬람 문화를

차용한 차도르와 금속 액세서리, 일본의 기모노를 연상시키는 구축적인 슬리브와 흉배를 응용한 자수 장식, 연극적인 쇼의 연출 등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화는 서구적인 아이덴티티와 조화를 통하여 극단적인 대비를 계속하여 보이고 있다.

즉 Alexander McQueen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해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서유럽 이외의



〈그림 6〉 Alexander McQueen, '03 F/W.
www.firstview.com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서구 중심의 절대적 이상미에 도전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하였다.

2. 시대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과학기술의 발달로 형성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되었다. 시간의 불연속적인 찰나성, 일시성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 속으로 압축하며, 시간의 압축에 따라 공간 역시 파생적이고 분절화된 순간적 활용의 대상으로 개방되었다.²⁴⁾ 이러한 전통적인 시간 개념의 붕괴로 인해 기존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그 의미를 해석하는 대상이 아닌 필요할 때 선택 가능한 이미지의 저장고가 되었으며 패션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사적 스타일을 이용하였다.

시·공간적 절충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복고풍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조형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징²⁵⁾이 되고 있으며,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인용, 은유, 혼합하여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복식분야에서의 복고풍은 자율적인 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대중

의 욕망을 이미 익숙한 것을 착용함에 의해 충족시키려 한다. 여기에서 이미지의 차용은 주로 패러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히 복고풍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이 충격을 완화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사조를 통해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경향을 시대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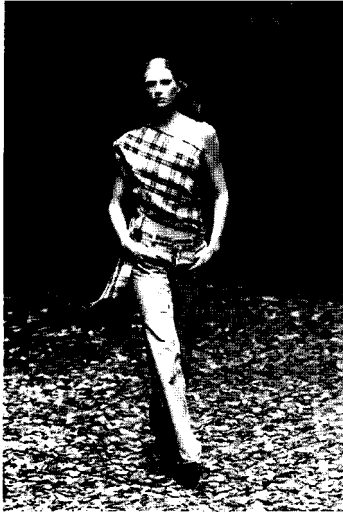
Alexander McQueen은 과거의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창조하는 영국 출신 디자이너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전통과 현대, 아방가르드와 클래식의 조화는 패러디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대한 복식사적 지식과 뛰어난 테일러링 기술의 조합으로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라인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그림 7〉, 〈그림 8〉과 같이 많은 컬렉션에서 16세기의 슬래쉬 장식과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의 노랑, 빨강, 검정의 타탄체크, 점잖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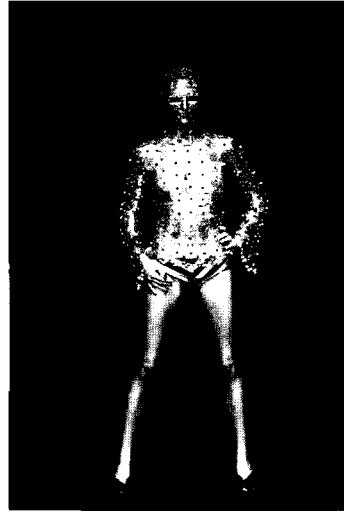


〈그림 7〉 Alexander McQueen, '96 S/S.
www.firstview.com

24) David Harvey,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역 (한울, 1996), pp. 354-357.
25) 정홍숙,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권 (1995), p. 75.



〈그림 8〉 Alexander McQueen, '00 F/W.
www.firstview.com



〈그림 9〉 Alexander McQueen, '00 S/S.
www.firstview.com

회색의 프린스 오브 웨일즈 체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이 Alexander McQueen 특유의 아방가르드한 라인으로 전개된다.

또한 Givenchy에서의 첫 번째 쇼에서 신화적인 행렬을 내보냈던 Alexander McQueen은 도금한 갑옷, 깃으로 장식한 큐피드, 코르셋을 받쳐입은 검투사들의 행렬을 통해 「벤허(Ben-Hur)」를 초라하게 느끼게 될 정도로 웅장한 행렬을 보여주었다. 1998년 F/W, 2000년 S/S 컬렉션에서는 〈그림 9〉, 〈그림 10〉에서와 같이 중세시대의 튜닉과 갑옷을 모던한 소재와의 조합을 통해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18세기 풍의 프록코트와 바이콘 햇을 모던하게 재구성한 의상과 17세기 풍의 폴딩 밴드 칼라가 변형된 테일러드슈트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2003년 S/S 컬렉션에서는 가죽과 시폰을 주요 소재로 하여 러프(ruff)칼라와 푸르푸앵(pourpoint)을 연상시키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로넨틱 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복을 선보였다(그림 11). 이 작품들의 디자인적 근원은 중세와 근세이지만, 모던하게 전개하여 현대적인 의상으로 재창조하였다.

Alexander McQueen은 역사적 경향에 대한 디자인적 영감을 세기전의 과거에서만 택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속의 스타일에서 차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10〉 Alexander McQueen, '99 F/W.
www.firstview.com

1998년엔 TV 시리즈 「미녀삼총사(Charlie's Angels)」에서 모티브를 얻어 1980년대의 글래머러스(glamorous)한 스타일을 만들어 냈고, 1960년대의 플래퍼 록(flapper look)을 McQueen만의 감각적인 스타일로 보여주었다. 또한 Givenchy 컬렉션에서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의 여주인공의 스타일인 1950년대 풍의 복고 스타일을 차용하여 현대패션과의 새로운 조화를 추구하였다.



〈그림 11〉 Alexander McQueen, '03 S/S
www.firstview.com

이와 같이, Alexander McQueen은 고대라는 전통의 극단에서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가장 최근의 1980년대의 구조적인 형태까지 여러 시대를 복식을 깨러디 기법을 이용한 조합을 통해 완벽한 재단으로 재탄생시키는 시대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정보, 컴퓨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사회 변용은 그 추동력으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의 이전 어느 단계와도 확연히 구별된다.²⁶⁾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 전환(culture turn)'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 산업, 컴퓨터 산업, 통신 산업 등이 상호 융합함으로써 고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산업부문이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하이브리드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 가능해지자 하나의 유형 및 틀로서 정형화되는 문화 체계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이로써 다른 형태들과의 전환적 상호관계 및 내부의

변화를 통해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각 문화적 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됨으로써 중층적이고 다면체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탈 중심적 특성으로서 주체적 시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인지 대도를 수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이는 문화 장르간 대립의 와해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 경계의 해체로 가시화 되었다. 즉 표현의 자유로움과 전문적 지식의 완화에 따른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변화는 패션의 영역에서도 나타나 장르간의 붕괴 및 다양한 스타일의 혼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Ted Polhemus는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가능한 모든 스트리트 스타일의 문화가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뉘범빅이 된 혼합을 '스트리트 스타일의 슈퍼마켓(street style supermarket)화'로 설명하고 있다. 스타일의 슈퍼마켓 경향은 디자인 구성상 획일성을 폐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연출 이미지로 자유로움을 택하는 것으로, 고전적인 디자인의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의 결합이 하이브리드적 디자인의 연출²⁷⁾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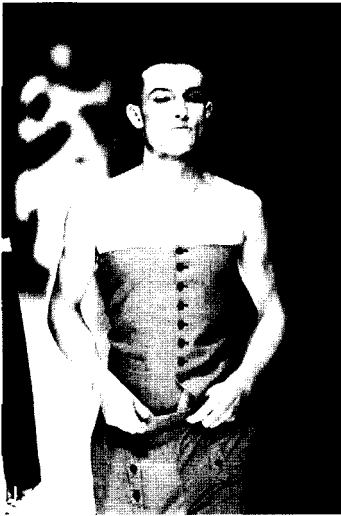
〈그림 12〉 Alexander McQueen, '98 S/S
www.firstview.com

26) 전석호, *정보사회론* (나남, 1997), pp. 17-31.

27) 임영자, 함윤숙, *Op. cit.*, p. 132.

Alexander McQueen은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한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여 문화적 장르와 스타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13〉, 〈그림 14〉와 같이 Alexander McQueen은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의 표현을 위해 선·면·공간 구성에 대해 구성주의적 변형과 해체



〈그림 13〉 Alexander McQueen, '98 S/S.
www.firstview.com



〈그림 14〉 Alexander McQueen, '99 F/W.
www.firstview.com

주의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확장방식으로부터의 이탈, 왜곡, 변형된 패턴이나 여명의 중심 이동 등을 통하여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위 문화 스타일을 이용한 혼란 중첩, 왜곡, 삽입 등의 대중적 표현방법은 단정하고 세련된 엘리트적 전통에 향하여 키치(kitsch)와 믹스&매치(mix&match) 감각, 레이어드 된 스타일, 여유롭고 자유로운 스트리트적 감성으로 유행을 이끌고 있다. 〈그림 15〉에서는 가죽과 레이스라는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하여 Alexander McQueen만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은 낙서가 가득한 석고 깃스와 쉬폰 드레스를 통해 기존의 하이패션의 틀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 용품이 패션의 재료로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전적인 스타일의 드레스를 해체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문화적 상식을 넘어선 즐거움과 유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7〉은 건축물을 세공해 넣은 금속 소재의 상의와 독특한 디테일의 감각적인 팬츠의 조화로 대중적 표현으로 대표되는 팝아트적 표현들과 하이패션의 감각적인 절충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예술장르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린 하이브리드 경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18〉은 전사된 흑백의 군인 사진이 핑크의



〈그림 15〉 Alexander McQueen, '01 F/W.
www.firstview.com



〈그림 16〉 Alexander McQueen, '96 S/S.
www.firstview.com



〈그림 18〉 Alexander McQueen, '96 F/W.
www.firstview.com



〈그림 17〉 Alexander McQueen, '01 S/S.
www.firstview.com

허무주의적인 느낌을 풍기며 단정한 느낌의 재킷과 조화되어 스트리트 패션이 리믹스된 스타일의 전개들 보이고 있다. 페인팅, 문신, 슬로건, 그래픽티 등으로 대표되는 1960-1970년대의 안티 패션의 대중적 표현들이 Alexander McQueen의 작품을 통해 하이 패션의 테두리 안에 녹아들면서 하위 문화와 고급 문화간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Alexander McQueen은 각 문화 장르간의 경계, 그리고 하위 문화와 고급 문화간 경계의 해체를 통해 표현의 자유로움과 전문적 격식의 완화의 형태로 보여지는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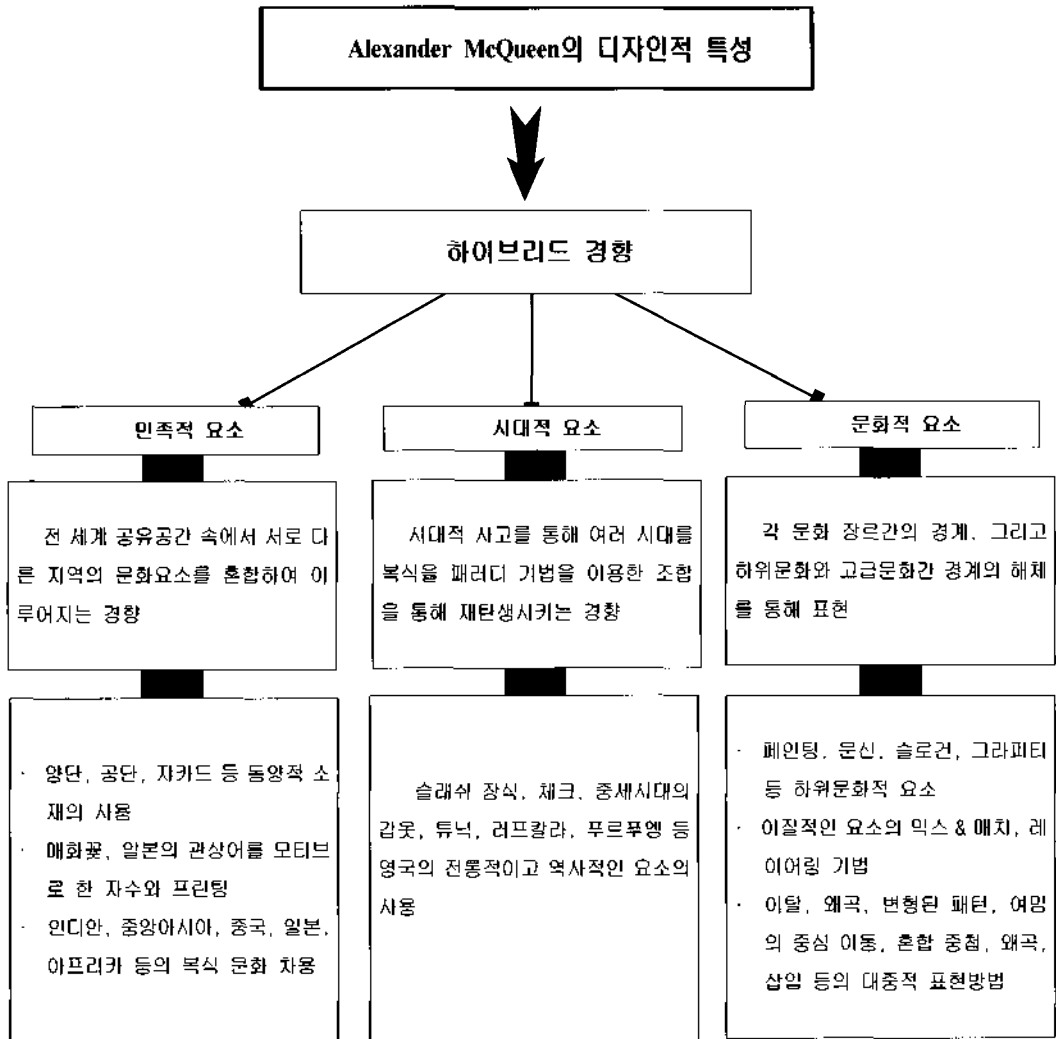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Alexander McQueen의 작품의 디자인적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IV. 결 론

Alexander McQueen은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스타일간의 경계와 구분의 와해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오는 세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혼성모방, 패러디, 콜라주 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기법으로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시간적, 공간적인 절충과 초월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노스 텍서어, 남녀 성의 혼합, 동양의 요소와 서양적 요소의 혼합을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표 1〉 Alexander McQueen의 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향



첫째, Alexander McQueen의 패션 작품에서는 세계 공유공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요소를 혼합하는 민족적 요소의 하이브리드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중앙아시아, 중국, 일본, 아프리카 등의 소수민족의 복식과 문화를 차용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으로 서구 중심의 이상미에 도전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창조하고 있다.

둘째, Alexander McQueen은 방대한 복식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패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아방가르드와 클래식의 조화를 이루는 시대적 요소의 하이

브리드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고대의 전통의 극단에서 중세, 근대, 그리고 가장 최근의 80년대의 구조적인 형태까지 여러 시대를 복식을 패러디 기법을 이용한 조합을 통해 과거의 것과는 전혀 새로운 라인을 창조하며 Alexander McQueen만의 디자인 세계를 과시하고 있다.

셋째, Alexander McQueen은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 해체를 통한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고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여 문화적 장르와 스타일의 경계를 부너뜨리는 문화적 요소의 하이브리드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세계는 페

선 작품을 통해 구성주의적 변형과 해체주의적 관점, 기존의 창작방식으로부터의 이탈·왜곡, 하위문화 스타일을 이용한 혼합·중첩·왜곡·삽입 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Alexander McQueen은 현대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현상아래 시대, 지역, 예술, 패션, 대중문화 등 범주에 대한 편견없이 자신만의 열린 사고와 독특한 감각으로 자신의 창작세계를 풀어가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세계는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에 끊임없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패션의 영역을 무한한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제공해 주고 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로 정의할 수 있는 그의 디자인은 무한의 패션 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다시 파생되어 미래에는 보다 진보적 이미지와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 패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종봉, 조병래, 이수영 (1996). "SiC/Si₃N₄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제조 및 특성." *한국재료학회지* 6권 4호.
- 고윤진 (1996). "영화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자영 (2000).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성 (1999).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장 (1995).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2000).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반미학,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 김준경, 고분자 하이브리드 연구센터(Polymer Hybrid Research Center) KIST 홈페이지 (2004년 12월 [2004년 12월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ebhost.kist.re.kr/teams/kist/korean/research>.
- 박홍, 윤도근 (1991).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5호.
- 배수정 (1999). "영국패션의 원동력에 관한 연구-Alexander McQueen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2권 3호.
- 양학미, 김민자 (2000).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 모방." *복식* 50권 1호.
- 염혜정 (1999).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복식* 37권.
- 임영자,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복식* 51권 5호.
-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권 5호.
- 전석호 (1997). *정보사회론* 나눔.
- 정홍숙 (1995).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복식* 25권.
- 조정비 (2003). "포스트모더니즘이 20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6호.
- 주명희 (1992).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외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권 1호.
- 최영락, 안진용, 안주삼, 백동규, 최승철 (1998). "마이크로파 하이브리드 소결법에 의한 NTC 서미스터의 제조." *The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rystal Growth* 8권 3호.
- Ammy de la Haya. *The Cutting Edge 50 Years of British Fashion 1947-1997*, (N.Y: The Overlook Press, 1997).
- David Harvey (1996).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역. 한울.